

전문학술지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과학교실

임 정 기

서 론

의학분야 학술지중 의학 전반을 다루는 “대한 의학회지”나 “Seoul Journal of Medicine”과 같은 것을 종합의학학술지(general medical journal)라 할 때 특정분야, 예를 들면 해부학및 내과학을 대표하는 “대한해부학회지”, “대한내과 학지” 등의 학술지를 전문학술지(specialist journal)로, 그리고 보다 더 세부화된 “대한비만학회 지” 등의 학술지를 세부전문학술지(superspecialist journal)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전문학 술지의 출현은 1949년 대한내과학회잡지의 창간 으로 부터 시작되어(조승열, 1995) 급속도로 그 양적 팽창을 이루게 되었고 이는 특히 최근 세 부전문 분야별 학회의 신설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근래에 전문학술지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향상도 있었으나 전문학술지 전반 혹은 일부에 해당되는 개선하여야 할 점들이 산적하여 있어 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문학술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찰은 향후 개선책 제시를 위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전문학술지의 양적 현황

우리나라의 의학분야 전문학술지는 학회의 공식 학술지에서 부터 특정 기관및 회사에서 발행 하는 학술지(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기 간행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학술지로 인

정할 것인가의 의문이 있는 것도 있어서 정확하 게 그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학회 학술지 (specialty journal) 33종, 세부전문 학술지(sub-specialty journal) 83종으로 116종에 달한다(조 승열, 1995). 여기에는 물론 대학및 기타 단체에 서 발행하는 종합학술지나 지방 분과학회지등은 제외한 것이다. 116종의 전문학술지중 1990년 이후에 창간된 것이 30종이며 이중 대다수인 26 종이 세부전문학술지(superspecial journal)에 해당한다.

원고 투고의 자격 요건

현재 의학협회 분과학회지의 대다수가 투고 규정으로 회원및 회원에 준하는 사람으로 투고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각 학술지가 해당 학회의 유일한 공식 학술지로서 회원에게 자동 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서 전문학술지간 상호 경쟁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자 총력을 경주하는 서 양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투고자격의 제 한은 전문학술지가 지향하여야 할 통합적 정보 의 제공 및 창출의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과거 투고된 원고를 해 당학술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이 나 혹은 게재거부를 하지 못하던 시절에 투고자 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문재의 소지를 없애 고자 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최근에 출간되기 시작한 세부전문학술

지는 투고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회의 구성이 다수의 분과학회 회원으로 되어있는 점과 투고자격 요건을 개방하여 보다 많은 원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원고의 형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문학술지의 내용은 원저, 종설, 증례보고로만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집인 논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저명 특강의 지상 발표, 임상화보 (pictorial essay), hot issue에 대한 편집인 초대 논쟁, 특별기고, 신간서적 안내, 학술대회의 뉴스및 요약등의 난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각 학술지별로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판단된다.

투고규정

학술지의 투고규정은 모든 저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서 그 학술지가 지향하는 바와 편집의 원칙을 요약한 것이며 학술지의 형태를 규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고규정은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보면 대다수가 원고작성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학술지는 3-5쪽에 저자의 점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하면 (기생충학잡지,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등), 어떤 학술지는 반쪽도 안되어 최소한의 필요사항도 기술하지 않고 있는 학술지도 있다.

또한 투고규정 자체가 과거 수십년전의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原稿紙는 200字 用紙를 使用하되 橫書로 쓰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正確히 하고 學術用語는 楷書體로, 歐文은 印刷體로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저자는 당연히 투고규정에 따라 200자 원고지에 필서를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필서하는 저자는 없으며, 또한 “해서체” “구문”의 의미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저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투고규정은 저자를 혼동만 시키는 없느니만 못한 투고규정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캐나다의 Vancouver에서 영어로 발간하는 주요 의학학술지의 편집인이 모여 의학분야 학술지에 제출하는 원고의 투고양식을 규격화하여 이듬해에 3개의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이어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이름으로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Vancouver양식으로 기술). 그 이후로 대다수의 영문학술지가 이 규정에 준하여 출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술지의 투고양식은 대부분이 Vancouver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Vancouver 양식과 참고문헌의 기입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소위 Harvard 양식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는 전문학술지는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전자는 본문의 괄호속에 아라비아 숫자로 참고문헌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입한 후 참고문헌 항에 번호순으로 기입하는데 비하여, 후자는 본문의 괄호속에 참고하는 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기입한 후 참고문헌 항에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서로 기술한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1992년도 분석에 의하면 (홍성태, 1992), 131종 중 77종(59%)이 Vancouver 양식이었고, 32종(24%)이 Harvard 양식, 기타 규정이 17종(13%), 그리고 명문규정이 없는 것이 5종(4%) 이었다. 학술지의 종류별로 보면 기생충학잡지, 대한해부학회지, 대한약리학회잡지, Korean J Bioch 등의 기초의학 학술지와 대한산부인과학회지와 같은 임상의학 학술지의 일부에서 Harvard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창간된 전문학술지 29종중에는 류마티스건강학회지와 Gerontology등을 제외한 27편이 Vancouver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문 학술지의 대다수가 Vancouver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완전한 Vancouver 양식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과거의 투고양식을 고수

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참고문헌의 번호 표기를 본문과 같은 선상에 기록하도록 권장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 아직도 어깨번호(superscript)를 사용하고 있고, 참고문헌의 표기방법도 저자, 논문제목, 년도, 권, 쪽의 순으로 된 권장사항과 달리 년도를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학술지가 많다.

학술지의 초록은 독자에게 가장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그 논문을 대표하는 결정체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문학술지 초록중에는 연구의 목적이나 결론이 기술되지 않고 방법과 결과의 나열만 있어 초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히 한글 초록은 생략하고 영문 초록만 게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표현상의 미숙함이 추가되어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고규정의 초록항에 “목적”,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을 제목과 함께 분리하여 기술하도록 하는 학술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고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학술지는 1995년 현재 총 16종인데 紙齡이 30년 이상된 학술지로 대한내과학회지, 소아과, 대한방사선 의학회지등 3종, 지령이 20-30년 사이의 학술지로 순환기와 당뇨병이 있으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지령이 10년 이내인 것이다.

원고의 심사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의 상업 학술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전문학술지는 제출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사위원 1-2인에게 의뢰하여 판단하는 소위 “peer review”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학술지의 존재 가치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의 정보를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원고를 평가하고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사자(peer reviewer) 및 편집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들은 제출된 원고가 해당 학술지가 추구하는 수준의 것인가를 파악

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가 가능한 원고의 경우 보다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충고를 할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은 학술지에 따라 또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논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듯 하다. 학술지 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은 학술지 내에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논문이 있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같이 게재된 다른 우수한 논문도 평가 절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만 게재하는 것이 학술지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건이다. 이를 위해서 심사자는 원고의 채택 여부 결정에 자유로워야 한다.

원고의 채택여부 결정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양이 충분하여야 하며, 인적 및 학연적 관계로 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또한 제도적으로도 자유로워야 한다. 원고의 양적인 면에서는 전문학술지 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인적 및 학연적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학술지 심사위원의 공통적 현실이라 생각된다. 편집 사무실 요원에 의해서 심사위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이유로는 현재 대다수의 분과학회에서 전문의의 시험자격 요건으로 논문 실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공의의 입장에서는 수련기간중 논문작성의 직접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갖추어야할 기초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학회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논문을 항상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하고 있으나,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질적 저하의 심대한 요인이 된다. 즉, 시험을 앞둔 전공의 논문의 채택 여부에 심사위원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전문학술지의 국제화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된다.

전문학술지의 외형

우리나라 학술지의 인쇄방법은 1992년 이성낙

등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30개 학술지중 26개 (87%)가 옵셋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용지는 50%가 백상지, 47%가 아트지나 스노화이트지였다. 그러나 최근에 창간되는 전문학술지는 예외없이 옵셋인쇄와 아트혹은 스노화이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으리라 예상된다. 임상, 기초의학을 막론하고 형태학적 사진이 많이 실리는 학술지는 거의 예외없이 아트지나 스노화이트등의 용지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사진이 비교적 적게 실리는 학술의 경우 아직도 백상지나 미색모조지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 기초의학 분야 전문학술지중 예방의학회지를 제외한 모든 학술지가 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임상 분야에서는 지령이 오래되고 중심과(major department)의 학술지 일수록 모조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우 원저의 사진은 희미한 흑백사진인데 비하여 사이사이에 삽입된 약품선전은 선명한 천연색으로 대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학술지의 대다수는 사륙배판(19×26cm) 인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사진의 선명성과 전달효과면에서 장점이 있는 국배판(21×28cm) 인쇄를 하고 있다. 국내의 전문학술지중 국배판으로 출간하고 있는 학술지는 지령순으로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대한해부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지, 의공학회지, Dermatology, Gerontology등 8개 학술지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트지나 스노화이트지를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 및 공동저자의 책임 문제

지적 소유권의 하나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의학 전문학술지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으나 해외의 정기학술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원고의 제출시 혹은 원고의 채택 이후에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에 전 저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 이양에 관한 동의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학술지가 특정 학회의 공식지일 경우에는 학회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판사에 저작권을 이양하고 논문 내용의 재사용 및 특허에 관한 사항은 저자가 갖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 및 저자의 의무 사항에 서명을 요구하는 학술지는 현재 가정의학회지,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및 대한신경외과학회지가 있다.

종합학술지와 전문학술지 간의 경쟁

근래에 우리나라의 종합학술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애로점은 원고의 부족인데 이의 주된 원인은 저자들의 선호도가 종합학술지 보다는 전문학술지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분과학회 산하에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기 활발하게 창설되면서 세부전문학술지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여 원고 유치의 경쟁은 전문학술지와 세부전문학술지간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세분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결과는 세부전문학술지로의 투고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학술지가 충분한 원고를 확보하려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잘 편집되어서 읽기에 편하여 “읽고 싶은 학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복게재 (multiple publication)의 문제

같은 연구 결과를 언어에 관계없이 두번 이상 게재하는 중복게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복게재의 가장 큰 폐단은 색인의 혼선에 의한 특정분야 통계적 자료의 비틀림이 있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Vancouver의 세계 편집자회의에서는 용인 가능한 중복게재의 요건을 1) 관계된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차로 게재되는 학술지의 편집인은 일차로 발표된 논문의 별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 중복발표시에는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내용도 줄여서 발표하여야 하며, 3) 이차 논문은 철저히 일차 논문의 자료와 결론을 견지하여야 하며, 4) 중복발표되는 논문은 각주에 원 발표된 논문과 같은 내용을

역독자를 위하여 중복발표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학술지에는 상기의 요건을 지키지 않는 중복게재 논문이 적지않게 발견이 되어 윤리적 측면과 의학정보의 왜곡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중복게재는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가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 무책임하지만 자신의 논문을 널리 알리고자 하거나 논문 편수를 늘리자는 의도가 있겠고, 후자의 경우 서로다른 저자가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예를 들면 증례 보고, 가 있다. 의도적인 중복게재의 경우 타인이 그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내논문의 검색에 저자나 후자들이 인식하고 또한 검색 자체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Korean Index Medicus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의학논문(중국어는 제외)을 수록하고 있어서 색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저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러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중복게재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국내 의학학술지의 중복게재의 빈도는 연구수정은 물론 저자순까지 동일한 논문의 경우가 1982년 23편, 1983년 54편, 1984년 35편, 1985년 58편, 1986년 33편 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호배 1989, 우리나라 의학정보 색인사업). 중복게재에 관한 최근의 통계적 자료는 없으나 새로운 전문및 세부전문학술지의 출간이 가속화되고 논문의 수요가 급상승한 1990년 대에는 훨씬 많으리라 예상된다.

전문학술지의 국제화

우리나라 전문학술지의 국제화는 “외국의 독자가 읽는 학술지인가?” 로 정의하였을 때 Index Medicus에 등재되어 있는 기생충학잡지,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등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제화의 단계에 못 미친다 하겠다. Index Medicus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

중에도 논문의 내용이나 편집의 질적인 면에서 국제적 학술지에 손색이 없는 학술지도 있겠으나 이에 게재된 논문의 국제적 전파 기능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전문학술지의 국제화에 있어서 넘어야할 장벽은 일차적으로 독창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원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편집진의 전문성과 열성이 있어야 하며, 수준이하의 원고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서로 인과의 관계를 갖는다. 전술된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의 공통적인 사항은 전문의 자격시험 요건의 부담을 받지 않는 학술지로서 게재거부가 비교적 자유롭거나 또는 초대된 논문의 게재인 경우라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 의학분야에서 해외 학술지에 논문의 게재 편수가 증가하면서 저자층의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전문학술지 자체의 국제화는 그에 못 미친다고 생각된다. 저자의 국제화는 수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저자층이 두터워 진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국내의 학술지에 게재하던 우수한 저자층이 점차 가치 있는 논문일 수록 일차적으로 해외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異面이 있다는 점이다.

국내 전문학술지의 국제화에 있어서 당면과제는 해당 소속 학회 회원의 원고이면 큰 오류가 없는 한 게재가 된다는 인식의 탈피를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제출된 원고에 대한 편집진의 전문적인 평가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수준 이하의 원고는 과감하게 거절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과의 고리를 푸는 것이며, 제2의 학술지 출간이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술지의 운영에 관한 편집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야 하며, 편집진의 전문화를 위하여 편집인의 해외연수, 편집위원및 심사위원 (peer reviewer)의 워크샵등을 통한 교육, 전문 편집보조원 (editorial assistant)의 양성및 고용이 바람직하다.

결 론

우리나라의 전문의학학술지는 근래 양적으로 현저히 팽창하였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되어 국제적 수준에 이른 학술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제적 수준에 뒤져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하여서는 유사 학술지간에 원고의 투고 및 편집 면에서 공개적이고 경쟁적 관계가 유도되어 적자생존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인에게 학술지 전반에 관한 강력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고, 편집인은 전문적이고도 엄격한 심사위원을 발굴 양성을 하며, 타성과 권위주의로 부터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역할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리하여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원고는 반드시 게재되고 그 반대의 원고는 게재가 거부되어 저자로 하여금 게재하고 싶고 독자로 하여금 읽고 싶은 학술지를 만들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호배. 우리나라 의학정보 색인 사업. 국내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보고서). 서울: 대한 의학회, 1989
- 이성낙. 의학학술지의 평가. 제 2회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workshop. 서울: 대한의학회, 1992: 67-68
- 조승열.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역사. Seoul J Med 36: 213-222, 1995
- 홍성태. 의학잡지의 투고양식. 제 2회 국내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서울: 대한의학회, 1992: 13-313.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88; 108: 258-265.